

#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본격 추진

### 도교육청, 사전 설명회 열고 사업 추진계획 안내 10월부터 호주 시드니·브리즈번서 6주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참가가 확정된 직업계고 학생 60명과 학부모, 현지 인솔교사, 사업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20명 중 8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영향으로 글로벌 인턴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인턴십은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6주간 운영된다.

도내 19개교 60명의 학생이 조리·제과·제빵, 전기·전자, 미용, 자동차 정비, 용접, 윌에·조경, 사무회계·서비스, 말사육, 목공·타일, 기계가공 분야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한편 글로벌 인턴십에 참가가 확정된 학생들은 방과후 원격 영어교육 60시간과, 안전교육 및 현지문화 이해교육 20시간을 이수한 후 현장학습에 참여토록 했다.

이강 청의인재교육과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가 학생을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0명으로 확대했다”면서 “2023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6주간의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장애학생

####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청주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특수학교 인권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특수학교 인권 업무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 황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린)가 강사로 참여해 ‘장애학생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로 현재 도내에서는 15개단 17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및 학교교과교사, 학교폭력 및 성교육 전문가, 상담전문가, 경찰서, 학교(성)폭력 담당자, 보호자 등으로 구성, 더봄학생 지원 및 관리,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더봄학생이란 학교(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에는 특수학교 관리자는 물론 인권 담당자까지 참석해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 관심을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이음교육 운영 나눔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정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정우초등학교 간 이음교육.

## 유치원·어린이집·초등 교육과정 연계

### 도교육청, 유·보·유·초 이음교육 운영 나눔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이음교육 운영 나눔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은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유아에게 연속성과 연속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더불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유·보 이음교육

은 ‘예대유치원’, ‘프렌즈유치원’에서, 또 유·초 이음교육은 ‘전주양지초병설유치원’과 ‘정우초병설유치원’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음교육 운영 나눔은 지난 6월 21일 예대유치원의 ‘우리의 숲 놀이’ 사이를 잇다’를 시작으로 △6월 28일 전주 양지초병설유치원 한울타리 생태이기 ‘쓰담 산책 플로킹’ △7월 4일 정우초 병설유치원 바로 또 같이, 전봉놀이 ‘함께하기’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프렌즈유치원에서는 ‘인형 형님! 아우아! 우리 함께 여름여행 떠나자’를 주제로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수업 공개 및 협의회가 진행됐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이음교육 운영 나눔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상호 이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음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음교육을 일반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22~23일 전북대 총장배

#### 배드민턴대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22~23일 양일 간 체육관에서 전북대학교 총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동호인과 일반인 등 300여 팀이 참여해 혼합복식과 남녀 복식 등 연평별, 급수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경품 추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배드민턴 용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도서관,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수강생 모집

우석대학교 도서관은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WI 전자책크리에이티브) 수강생을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재학생 및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 기획과 전자책 제작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 ‘제주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 전주대 국토대장정 일정 마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된 8박 9일간의 하계 국토대장정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토대장정은 지난 11~19일 제주항 도착 후 반시계 방향으로 해안도로 및 울타리를 따라 서귀포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걷는 일정으로, 해류를 따라 밀려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ESG 활동과 더불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으며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은 물론, ESG 활동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느꼈다.

또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기념관 견학, 재단 관계자의 해설 및 특강, 회생자 추모 등을 통해 학생들은 제주의 아픈 과거에 대해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학생들의 손길이 닿은 해안 지역의 깨끗한 모습을 직접 지켜본 현지 청년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큰 격려가 전주대학교 국토대장정 단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 자리에 학생들과 함께 걷고, 사계 해변 ESG 활동에도 참여한 임정영 총동문회장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제주도에 온전히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토대장정을 계기로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런 후배들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배 총장은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안전과 응원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된 8박 9일간의 하계 국토대장정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9일 익산 안전보충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도내 농식품 전후방 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역량 Scale-u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지역 농식품 기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

###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익산서 '투자역량 스케일-업 교육'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는 지난 19일 익산 안전보충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도내 농식품 전후방 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역량 Scale-u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바이오 플렉스 II, 한국농수산대학교 I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 기관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신산업 분야인 우수 농식품 바이오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IR 기본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풀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IR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용 PPT 제작 지원 등이 진행됐다.

또한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IR 매칭 데이’에 대비한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기회 제공 등 투자유치를 위한 체계적 지원도 이뤄졌다.

모두 2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역 농식품 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 해소, 기초단계 이상의 투자 교육을 통한 참여기업의 투자역량 강화 등이 기대된다.

권대규 센터장은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도내 신산업분야인 스마트농생명 분야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농식품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최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중등교사 인공지능 기초 직무 연수

### 전주교대서 24~28일 중·교고 정보 담당교사 19명 대상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 정보 담당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교육청 위탁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중·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에 포함된 인공지능 기초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 담당교사들의 SW·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850만원의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초의 교육과정 이해부터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데이터 처리와 탐색, 인공지능의 이해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수업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강의와 실습,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본 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고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의 AI교육 역량을 강화해 현장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AI교육 운영 및 학생 교육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AI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총장은 “AI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인재들이 양성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학교환경교육 방향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콜로키움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0일 전통문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7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분석 보고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동향 및 통계를 분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열린 콜로키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생태전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생태전환교육’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 및 서울·충북·경남·전북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봤다.

또 핀란드·독일·영국·프랑스·미국의 정책과 각 나라별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방향’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후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에서는 전북의 보육(어린이집) 현황을 연도별·설립주체별·지역별로 간략히 살펴봤다. 또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자료를 활용해 어린이집 이용률과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을 연도별·설립주체별·지역별로 비교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달부터는 ‘뉴스 키워드 분석’ 코너를 신설해 지난 한 달 동안 교육 관련 주요 뉴스 기사 키워드를 토픽 모델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시각화 해 소개했다. 분석 결과 이달의 교육 관련 뉴스에서는 ‘수능 길러문항 배제 방침’과 ‘4세대 나이스 개통’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성 기자